

광주 동구·목포·순천 2325억 들여 구도심 재생

쇠퇴한 옛 시가지나 노후 산업단지·항만 등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인 광주 동구와 전남 목포, 순천 등 전국 8개 지역의 사업계획이 확정돼 낙후한 도심 재생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 동구와 목포, 순천 등 3개 자치단체에 총 2325억원을 투입해 구도심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광주 동구 등 전국 8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의 사업계획이 최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광주 동구 506억원을 비롯한 전남 목포(339억원)·순천(1480억원), 대구 남구(사업비 규모 240억원), 충북 천안(2080억원)·공주(1036억원), 인천 군산(727억원), 강원 태백(103억원) 등 총 6500억원 규모다.

지역별 사업계획을 보면 근린재생형인 광주 동구는 충장동과 동명동, 산수동, 지산동 일원 966.551㎡에 도심문화산업 활성화를 추

동구 충장·동명동 506억 투입
예술의 거리 등 문화산업 활성화

목포 목원동 일대 339억 들여
음식특화거리 등 도심관광형

순천 향동·중앙동 일원 1480억
에코마을 등 정원·생태형으로

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 과 연계해 도심 문화산업을 유치하고, 생활공예 활성화, 근대양육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예술 활용재생 등 6개 사업 218억원,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활성화 등 3개 사업 262억원, 금남로보행환경개선 등 2개 사업 26억원 등이다.

목포시는 전남도청 소재지인 하당·남악 등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쇠퇴한 원도심 목원동 일원 600,000㎡에 외부관광객 유인을 위한 도심관광 활성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의 74%가 빠져나갔지만, KTX목포역 등이 개통될 경우 수도권 등과의 접근성이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다양한 지역축제와 유달산 등 풍부한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갖춘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해당 지역에 목포역~유달산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한편 민어와 낙지, 홍어 등 대표음식 특화거리 조성 및 공가를 활용한 지역출신 작가마을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등 10개 사업 208억원, 역사문화의 길 조성 등 2개 사업 114억원, 남진 기념 사업 등 2개 사업 17억원 등이 투입된다.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 교통·행정 중심지였으나 외곽 신시가지 조성으로 공동화된

원도심 향동·중앙동 371,000㎡ 일대에 ‘정원·생태’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은 순천부유성 등 지역자산 활용 및 도심 공원·정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지에 옥상녹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에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공가를 활용한 게스트 하우스 조성 등 주민소득 창출 사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곡 에코마을 조성 등 21개 사업 200억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등 5개 사업 409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 등 2개 사업 93억원, 하수관거 정비 778억원 등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최근 주택도시 기금 설치와 입지규제 최소화역 신설 등을 담은 법령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빛고을 길 지킴이단 밴드를 광주 빛낸 가장 우수한 시책 뽑혀

광주시민들은 올 한해 광주시의 시책 중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안전체계 마련’과 ‘빛고을 길 지킴이 단 밴드(Band)’ 사업이 가장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한 주요시책 시책사업의 성과와 창의 혁신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올해의 BEST 5’를 선정했다.

시는 각 실·과·소에서 응모한 성과부문 23건, 창의혁신부문 15건 등 총 38건에 대해 자체 평가를 거쳐 21개 사업으로 압축한 뒤 시민, 공무원, 시의원, 출입기자 등 3382명의 설문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성과부문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안전체계 마련, 2015 국비 지원사업(신규) 최대규모 확보, 달빛동맹 및 서울과의 한 뿌리 상생발전 추진, 경로당 전남 주주지회 의료서비스, 저비용항공사 광주공항 유치 제우 하늘길 확대 지원 등의 순으로 1~5위를 차지했다.

창의혁신부문은 ‘빛고을 길 지킴이단 Band’가 1위에 오른 데 이어 시내버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 창의적 감사기법 개발로 18억원 수입증대, 전국 최초 3차원 분석 체납세 징수, 사회통합 광주형 일자리창출 등이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성과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중증장애인 사회적 안전체계 마련’은 특·광역시 최초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현 광주시장이 민선 6기 취임 후 첫 결재한 사업이기도 하다.

창의혁신부문 1위인 ‘빛고을 길 지킴이단 Band’는 스마트폰 앱 ‘Band’로 도로환경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각종 도로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재의 광주시 성과평가담당은 “10대 Best 시책 선정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정시책을 평가했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부단체장 임기 3년→2년으로 인사제도 개편... 내년부터 적용

전남도는 4급 부단체장의 임용 대상을 4급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고 보임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5급 이하 승진·전보 과정에 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전보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를 구성하고, 전문직위제를 도입해 재난이나 투자유치 등 일부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5일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을 담보한 인사행정 운영, 중앙부처 등과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해 2015년 첫 인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위직 전보인사 시 선호부서 집중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던 ‘실·국장 의견제’는 직원 희망보직제를 병행해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이 종합 반영되도록 했다. 또 전문성과 계속성이 필요한 재난·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업무 등에 ‘전문직위제’를 도입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전문직위수당 지급, 근무성적평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등에 취약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승진 시 중앙부처나 영호남과의 인사교류자 및 희망자를 우선 승인 임용하고, 국외훈련 우선선발, 주택보조비 지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국 단위 근무성적 평정 시에는 상·하급자가 참여하는 토론식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여성공무원 5급 이상 승진은 명부순위 2배수 범위 내 자는 승진대상자로 선정해 임용목표 8.8%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장만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 경비 법정 전출금 예산편성 사전 협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사업,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노력,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전남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법인 236명 공개

3000만원·1년 이상 체납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와 법인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시는 15일 “2014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와 법인 각 74명과 4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명 기회와 체납액 납부사실 여부 확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명단 공개자는 지난해 316명보다 202명 줄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규 발생자만

공개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체납액은 개인 74명이 60억원, 법인 40개 업체가 41억원이다. 개인은 남재희(71)씨로 3억 41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 불명예를 안았다. 법인에서는 3억5900만원을 체납한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유이이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도 이날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2명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인·법인 체납자 중 백인순(순천시)씨가 10억2100만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다. 법인 중에서는 (주)케이에스해운이 8억4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체납자 중 특이점은 한때 여수시장까지 지

냈던 김광현씨가 55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점이다. 김 전 시장은 여수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불복청구절차 미완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등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인건비 착복 의혹 시내버스 회사 특별감사

광주시가 시내버스 인건비 중 수십억원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관련, 해당 버스 회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5일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인건비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감사착수 조치는, 이날 시의회의 추경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의 ‘시내버스 회사 감사’ 요구가 묵살되자 정회까지 선포되는 등의 진통 끝에 이뤄졌다.

감사는 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감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감사 불가 방침을 밝혔던 광주시는 감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역 일부 시내버스 인건비 착복 논란은 지난 10일 시민사회단체인 ‘잠여차지 21’이 일부 업체의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기됐다.

이 단체는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버스업체의 인건비 착복이 3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인건비 착복 의혹에 대해 “운전원 인건비와 연료비를 제외한 정비·관리,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은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간 사용액과 지급액이 차이가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빙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 1위의 음성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김서연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주)콜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